

얼 빠지고 나사 풀린 경찰

- #1. 피의자→피해자로 바꾸고
- #2. 민원 해결 대가 뒷돈 수수
- #3. 오락실 업주에 접대 받아

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음, 민원 해결 대가 '뒷돈' 수수 등 일선 경찰의 온갖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광주경찰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로 바뀐 경찰의 허술한 수사 의혹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광주경찰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1일 경찰이 차량 전문 절도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사기 피해자로 처리하는 등 사건을 허술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 등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위 등 이외에도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팀원 6명을 상대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왜곡 수사를 했는지,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 수사와 정에서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차량 전문절도 사건 수사를 벌여 김모(46)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입건된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B씨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경찰이 B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진정을 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최근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편파·왜곡수사의 오명을 씌우는 것은 용지 않다"며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은 업무 보호 대가와 민원 해결 명목으로 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광주 북부서 모 지구대 문모(38) 경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일에는 광주 서부서 모 지구대 최모(42) 경사와 서모(40) 경위가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수백원의 금품과 향음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또 서부경찰서 김모(35) 경장은 수억원대 대기업 취업 사기에 연루돼 지난 6월 직위해제되고 구속되기까지 했다.

서부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최 경사 등이 근무했던 지구대 직원 15명을 전보 조치하는 등 '조기진화'에 나섰다. 최근 음주단속과 관련한 잡음이 일자 교통안전계 일부 직원들도 교체하기도 했다.

이밖에 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K경장이 최근 휴일 심야근무 도중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감찰에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광주청은 일부 지구대 직원들이 비번과 휴일을 순환하며 일하는 '지정 근무' 때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일선 지구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칭한 광주청은 현재까지 비위로 적발된 경찰관이 모두 29명으로, 이 중 파면 1명·해임 6명·징역 7명 등 모두 13명이 중징계 처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김재균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총선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개인 빚 5천만원과 부인 주모(55)씨 지고 있던 개인 빚과 금융기관 채무 4억여원 가량을 총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50) 김장두



전남도의원 불 탄 차서 숨진 채 발견

전남도의회 의원이 강진의 한 도로변 불에 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6시 26분께 강진군 성전면 남성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로체 승용차가 지리안대표시판을 들이받고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신고 후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17명

이 현장으로 출동해 8분 만에 진화했으나, 승용차는 전소됐고 차량안에 있던 전남도의회 이모(49·장흥군 제2선거구)의원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고 승용차 문은 모두 잠겨져 있었으며, 숨진 이 의원은 뒷자리에 앉은 채 불에 타 시신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업인의 날 한마당 11일 나주시 남평 드림길 고수부지에서 농업인들이 대형 공굴리기를 하고 있다. 남평농협(조합장 김병원)은 이날 제 1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고 인절미 만들기, 뽕튀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테마 섬' 조성 등 미끼 토지 900억 불법 매입

'테마 섬' 조성 등 지역 개발사업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관공개발업체 임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한 S 관공개발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임직원 3명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강모(50)씨 등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신안군 일대 시가 900억원 가량의 토지 1천400여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다중주택·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1차 및 2차 분양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시정 칼날 위에 선 지자체들 검찰 잇단 수사에 촉각 곤두

검찰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정(市正)의 칼날을 곤추 세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광주 남구청 '정음성 음악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11일 영광군청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잇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기획수사가 시작돼 전 자치단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지자체 비리부분은

검찰이 수시로 쟁기는 부분이다. 재본가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 기획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검이 지난 3일 특수수사관을 보강하는 등의 소폭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광주지검은 특수부에 검찰 수사관 3~4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조사과에서 한 팀을 분리해 가정·범죄 및 사건 인지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토착비리 수사 등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광군 '숲 가꾸기' 비리 의혹 수사

광주지검, 군청 압수수색·계좌 추적

검찰이 영광군이 추진중인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운)는 11일 오전 영광군청에 수사관 3~4명을 파견해 '숲 가꾸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녹지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관련 공무원과 업체들에 대한 금융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수의계약을 통해 군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도급받은 영광군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일부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로부터 영광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비리 의혹을 '숲 가꾸기' 사업에서도 포착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조교제 대가 도난수표 줬다가...

○광주북부경찰서는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모 대기업 직원 김모(37)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여·17)양과 성관계를 갖고 15만원을 건네는 등 A양과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

○경찰은 김씨가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건넨 수표가 1~2개월 전 충북에서 '민자탈'로 도난 신고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으며, 수표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

○한편, 검찰은 A양이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몇 달 동안 지내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성매매수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할 중.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OPEN 동 11월 14(금)

11월 14(금) 장윤정

15토16일 조항조

17일18일 송내관

20목21금 최진희

25화 박현빈

27목28금 김수희

4목5금 설운도

광주첨단·특스존열 나이트